



즉시 배포용: 2018 년 4 월 12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의 남녀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

뉴욕주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늘리고 노동조합원을 보호하는 법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에서 남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Janus 대 미국 주정부, 카운티 정부, 지자체 공무원 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AFSCME) 소송 사건의 불리한 판결을 예상하여 뉴욕의 공공 부문 직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가입을 늘리고 노동조합원을 보호합니다. 또한 이 법은 미국 전 지역의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는 연방 정부가 취한 고의적인 조치에 맞서 보호 수단을 제공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자주, 그리고 이 연방 정부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노동 운동이 퇴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남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직장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의 나머지 지역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방 정부가 뉴욕의 노동 계급의 입을 막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사회와 모든 산업 분야의 목소리를 전부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교섭 단위의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노동조합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는 특정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 혜택을 완전히 제공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이 노동조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영역의 사업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입 직원을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교섭 단위에서 승진시킬 경우, 30 일 이내에 해당 노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입 직원의 이름, 주소, 직장 위치를 노동조합에 제공해야 합니다.
- 합리적인 시간 동안, 그리고 공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로, 노동조합 대표가 30 일 이내에 신입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을 지원합니다.

- 노동조합원 신분을 유지할 경우, 휴직 기간에도 노동자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 고용주가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자 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방식으로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더욱 간편하고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이 휴직할 경우 정지된 조합비 청구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교섭 단위로 복직할 경우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서명은 남녀 노동자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뉴욕의 중산층을 위한 기회를 신장시키기 위해 기울인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2011년부터 주지사는 노동자 착취 근절, 프로젝트 노동 협약 지원, 전체 조합비의 주정부 세금 공제 허용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노동하는 뉴욕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지사는 2017년 한 해에 총액으로 3,500만 달러가 넘는 착취된 임금이 회수되어 36,000명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 이달 초에 발표했습니다.

이 최신 조치를 통해, 연방 정부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억제하는 한편, 미국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장 활발한 주인 뉴욕에서 노동 운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